

##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19, 2부

### 열왕기하 5-6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죄 이야기를 떠다니는 도끼머리와 결합시켰습니다. 이제 성경, 즉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둘 사이에 장 구분이 있습니다.

도끼 머리는 6장의 처음 몇 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문법이 중단 없이 5장부터 6장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 자주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지루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화자는 최소한의 말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와, 금이 반 톤이요, 은이 이백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미친 짓이야.

어쩌면 내 주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만큼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용서하여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이시여, 나는 당신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시여, 나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머. 어머. 게하시가 하나님의 불을 자기 위에 내려놓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나아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만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가 자기 뒤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게하시가 정말 똑똑하네요. 만일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면 나아만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엘리사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다면 그 맹세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말하길, 아, 이 두 친구가 나타났는데, 내 주인이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얼마나 능숙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값비싼 진리의 향수를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져가세요. 그는 한 달란트, 즉 은 75파운드를 요구했고, 나아만은 두 달란트를 받고 두 달란트를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개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의 하인 두 사람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게하시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산에 이르러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보내시매 그들이 가니라

거기에는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무 온화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게하시야,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나는 아무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집 근처에 바로 있었다. 거짓말쟁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당신을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공교롭게도 개정된 표준인데, "나는 내 영으로 당신과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내가 당신과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구약성서의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며, 생각하는 곳, 느끼는 곳, 결정하는 곳입니다. 나는 꼭 거기에 있었다.

당신은 장님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나의 불쌍한 시각 장애인 게하시(Gehazi)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머가 너무 재미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뛰어다녔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도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볼 수 없습니까? 어머.

나는 전에 그것을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당신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에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이 돈과 의복과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는 게하시의 머리 속에 있습니다.

게하시의 생각은 '175파운드 정도의 은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지금이 시간인가? 엘리사는 바로 그의 머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들러붙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의 힘. 그분은 나병환자로서 눈처럼 하얗게 그 앞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아만이 교만과 오만함으로 시작했지만, 게하시는 그의 부정함과 상실로 끝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진실은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아, 아, 하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JC Penney에 대해 언급되었으며 그에 대해 인용되었습니다. 100만 벌면 500만 벌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500만 벌면 1000만 벌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1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 나는 아마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엄청난 부가 부족합니다. 게하시에게는 궁핍한 상황이었고, 이 150, 200파운드의 은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공급자이신 우주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빵과 물로 충분할 것입니다.

어서, 오스왈드. 진심이야. 진심이야.

우리는 무엇이 충분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 복되고 깨끗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 세기에 걸쳐 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떠다니는 도끼 머리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나는

이것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다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태도를 살펴보세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감독하에 있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이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각각 통나무를 구하여 거기 거처를 마련하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그 사람은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하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거를 타고 나아만에게 말하려고 하인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수넴의 부유한 여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하인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면승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입술이 불에 그을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매료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장벽이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갈 것이다. 이 몇 단어에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친교, 장벽 없음입니다.

저기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요르단이 있습니다. 물을 주목하세요. 선지자의 명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물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삼키기도 하고 도로 돌려보내는 물이니라.

이제 저는 이것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에요.

생명을 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거래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특히 자기 자신을 잃는 세상은 당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세상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온 땅이 내 영광이 아니라 너희 영광이 아니라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디테일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이때쯤이면 철기시대가 약 200년 정도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나이로 따지면 20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철은 여전히 매우 귀중합니다. 철공은 여전히 매우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도끼를 빌렸어요.

우리는 그 도끼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의 것과 매우 유사했을 것입니다. 쇠도끼 머리가 미끄러져 들어간 나무 손잡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철이라고만 부릅니다. 나는 오하이오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으며, 철제 도구를 종종 철이라고 부르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천을 펴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쇠덩어리였기 때문에 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쇠가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글썄요, 빌린 거예요.

아아, 주인님, 그건 빌린 거예요. 아마도 이 선지자는 현금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할까요? 보세요, 제가 주인이에요. 당신은 노예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처리합니다.

아뇨. 어디로 떨어졌나요? 그 사람은 그에게 장소를 보여 주었을 때, 막대기 하나를 잘라 거기에 던졌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엘리야, 특히 엘리사가 어떻게 모세의 일을 흉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 주셨고, 그가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설자들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온 힘을 다해 몸을 구부립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요점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을 사용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당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것이 아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잡아 줄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 그게 진짜 의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단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우연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든 것은 나무 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 조각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압니다. 나는 갈보리산에 나무토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쓴 것이 달콤해집니다. 잃어버린 것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쇠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한 일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리저리 휘젓고 도끼 머리를 물에서 꺼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하는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글썄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쇠가 떠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기적에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얼마나 자주 주나요?

그것을 얻으십시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간다.